"性범계 아신 빤딧짜 '공개 참회' 하라"

보도 후 비판 여론 확산… "테라와다 수행자 상처"

한국 · 미얀마 양국 불자 '충격'
담마끼띠 스님, "승단추방죄"
"테라와다 불교 위축" 우려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미얀마 출신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교계 안팎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스님이 한국과 미얀마 불교 양측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공개사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한국 내 외국인 스님에 대한 편견이나 테라와다 불교의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신 빤딧짜 스님 사태와 관련한 本紙 보도(1305호 참조) 이후 불교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스님이 2016년 첫 범계 이후에도 승려생활을 하며 법문과 수행지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한국에서 테라와다 불교는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고 알려져, 한국 일각에서는 지계정신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테라와다 불교는 불자들에게도 율장을 읽도록 권한다. 스님이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불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율장의 여러 계율 중에서도 승려의 성행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범계이자 '승단추방죄'다. 상황과 무관하게 고의로 행위를 한 즉시 승적이 박탈되고 다시 테라와다 불교로 출가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개인의 범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범계를 숨기고 승려로 활동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문제를 내부적으로 은폐하기보다 외부로 드러내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다만 이번 사태가 한국 내 테라와다 불교에 대한 인식이나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대표 아짠 빤냐와로 진용 스님)의 김기식 재가위원회장도 "범계행위는 마땅히 고발돼야 하고 승가와 사회법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첫 범계 이후에도 스님에게 삼배하고 공양을 올리고 예경한 수많은 수행자들은 물론, 한국 불교계에도 공개적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아신 빤딧짜 스님은 미얀마 승단 소속이기에 한국 테라와다 불교와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테라와다 불교 수행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불자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실 아신 빤딧짜 스님의 환속에 관한 소문은 미얀마공동체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된 상황이었지만, 기사가 나온 뒤 이를 미얀마어로 간추린 내용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얀마인들 역시 충격이 대단히 크다"며 "다만 체면을 중시하고 부끄러운 일은 감추는 미얀마인들의 문화적 특성상 이에 대한 피드백은 크게 없는데 비해, 확산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미얀마인들의 반응이 없는 이유는 사태에 대한 생각이 한국과 다르거나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얀마인들의 정서적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담마야나 선원 수행자와 한국 불교계 일각에서는 담마야나 선원이나 아신 빤딧짜 스님이 공개적인 참회를 통해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특히 서울선원이 폐쇄되고 대구선원이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지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한 담마야나 선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선원 일부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미얀마 대사관에 공식입장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공개참회 및 출국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수행을 우선하는 테라와다 불교계 특성상 이 같은 여론이 구체화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 많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가 한국 내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편견이나 테라와다 불교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철저한 지계정신에 대한 예경의 마음으로 테라와다 불교를 접한 불자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테라와다 수행처 중 하나인 모 선원 관계자는 "사실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소문을 전해 들은 고참 수행자분들 중에서는, 테라와다 불교를 떠난 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행에 전념해 온 분들이 상처받는 현 상황 자체가 씁쓸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수행자와 스님들이 경각심을 갖고 더욱 수행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개산 1050년 봉선사 첫 심볼 마크 탄생

8월 15일 공모시상식

봉선사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를 상징하는 심볼 마크가 공모전을 통해 탄생해 화제다. 봉선사(주지 초격)는 8월 15일 경내 회의실에서 봉선사 심볼 마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봉선사 심볼 마크가 생긴 것은 개산 1050년만에 처음이다.

봉선사 심볼마크 공모전은 지난 6월 30일까지 진행됐다. 20여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는 상징성과 독창성, 참신성, 이용성 등을 고려한 가운데 교구 내 소임자 스님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진행됐다.

대상으로 선택된 작품은 과천에 사는 유슬기 씨의 '봉선사 큰법당과 광릉숲, 그리고 부처님'. 우수상에는 광명에 사는 유지영 씨의 '한글 품은 봉선사' 가, 장려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정현 씨의 '봉선사 대종과 광릉숲' 이 선정됐다.

주지 초격 스님은 "이번에 결정한 심볼마크는 봉선사와 앞으로 영원히 함께 가야 할 것"이라며 "봉선사 창건 1050년 만에 봉선사를 상징하는 심볼이 탄생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향후 수상작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개선한 후 종단 휘장과 함께 교종본찰 봉선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세계유산 팔만대장경 '웹툰'으로 알린다

해인사 제1회 웹툰 공모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팔만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현응)가 첫 웹툰 공모전을 시행한다.

해인사는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제1회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중고교생 및 대학생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사찰 역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면 되며 1인(팀)이 2개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분량은 자유이며, 웹 게재용 규격으로 가로 700px, JPG, PNG 형태 파일로 해상도 300dpi 이상의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며, 결과는 10월 8일에 발표한다. 시상식은 해인사 개산 1218주년 다례재가 봉행되는 10월 16일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055)934-3095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화종, 차기 원장 서리 임명 또 논란

종정, 서리 직무정지처분 후 차기 서리에 지관 스님 임명
공식 발표 없어 논란 야기해
자격의혹 · 반발여론 확산돼
차기 총무원장 선거도 시급
중앙종회, 관련 임시회 소집

총무원장 법정 구속에 이어 총무원장 서리까지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으면서 유례없는 혼란에 빠진 법화종이 좀처럼 정상화 수순을 밟지 못한 채 여전히 각종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종정 도정 스님이 새로운 서리를 임명했지만 이로 인한 혼란이 되레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화종 중앙종회가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제105차 임시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건 등을 논의키로 했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선거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법화종 종정 도정 스님은 8월 18일 최근 공석이 된 총무원장 서리직에 기획실장 지관 스님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서리 임명이 종단 내 명확하게 공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관계자는 "종정예하께서 18일 오후 4시경 지관 스님을 서리로 임명한 것은 사실이나, 집행부 임원 외에 이 같은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관 스님의 경우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겸직이 유지 중이란 점에서 자격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지관 스님은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사직서를 중앙종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중앙종회가 겸직금지 조항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지만 종법상 종회의원 해임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지관 스님의 자격 자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종단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스님의 비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헌사 주지 임명 및 정혜사 탈종 · 매각 등 구속된 전 총무원장 도성 스님 체제에서 발생했던 의혹까지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당시 정혜사 매각과정에서 법원 중재로 2억2000만원이 종단 회계에 입금돼야 하지만, 이 중 7000여만 원만 입금되면서 당시 주지였던 지관 스님에 대해 1억5000만원의 행방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8월 18일 서리로 임명된 이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모두 유언비어로,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종정 예하의 당부대로 총무원장 선거를 잘 준비해서 종단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중앙종회와도 대화하고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의 해명에도 종단 일각에서는 정혜사, 교헌사와 관련한 법적 고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종정 스님의 결정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리 임명에 앞서 원로회의와 주요 관계자 연석회의 등을 통해 현 종단 상황과 후속조치, 차기 서리 임명시 철저한 자격검증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반대여론이 높던 지관 스님을 서리로 임명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상황에 대해 또 다른 종단 관계자는 "전 총무원장 구속 당시 집행부 임원으로 책임이 있던 진우 스님이 서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직무정지라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다시 진우 스님 서리 체제의 임원이었던 지관 스님이 서리로 임명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진정한 정상화는 현재 종단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책임을 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는 8월 12일 공문을 발송해 8월 21~30일 중앙종회 105차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주요 안건은 △총무원장 서리 해임 궐위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안의 건 △신임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절차의 건 △기타안건 등이다. 오는 10월 前 총무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총무원장 선거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문발송 이후 서리 임명을 비롯한 일부 종단 상황이 변화된 만큼,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모일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선출권한을 갖고 있지만 총무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총무원장 선거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시회 차주 상보〉

송지희 기자

종사 · 명덕 법계 특별전형 실시

조계종 9월 2일부터 접수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무관)가 불기2564년도 '종사 · 명덕 법계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대상은 승랍 30년 이상의 종덕(비구) · 현덕(비구니) 법계를 수지한 스님이다. 또한 종덕(현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거해 결계신고에 누락이 없고, 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9월2일부터 9월16일까지 지원서를 비롯해 수행이력서,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재적 교구본사 종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공모대상
• 중 · 고등학생부 : 14세 이상 ~ 19세 미만 (2001년 이후 ~ 2006년도 이전 출생자)
• 대학생 · 성인부 : 19세 이상 (2000년도 이전 출생자)

공모주제
•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그리고 해인사의 역사 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자유 주제

출품규격 및 주의사항
• 웹 게재용 규격 가로 700px, JPG, PNG 형태로 제출 (해상도 300dpi 이상, 18MB 이내)
• 분량 자유
• 공모전 출품은 1인(팀) 2작품까지 가능

공모일정
• 응모 기간 : 2020. 08. 24 ~ 2020. 09. 29
• 결과 발표 : 2020. 10. 08
• 시상 일정 : 2020. 10. 16 (해인사 경내에서 시상식 진행)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신청서 :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haeinsa.or.kr)
※ 신청서 작성 후 공모전 출품작과 함께 홈페이지 업로드
※ 제출시 파일명 예시
: 출품자명(팀명) – 중 · 고등부 – 제출일(20200824)

심사기준
• 주제 적합성 25점
• 독창성/창의성 25점
• 전달성/활용성 20점
• 작품 완성도 30점

공모전 시상내역

공모대상	대 상	우수상	장려상
중 · 고등학생부	2,000,000원 (1명)	1,000,000원 (1명)	500,000원 (4명)
대학생 · 성인부	2,000,000원 (1명)	1,000,000원 (1명)	500,000원 (4명)

문의사항
• 접수처 :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TEL : 055-934-3094~5
FAX : 055-934-3096

법보종찰 해인사 불교신문